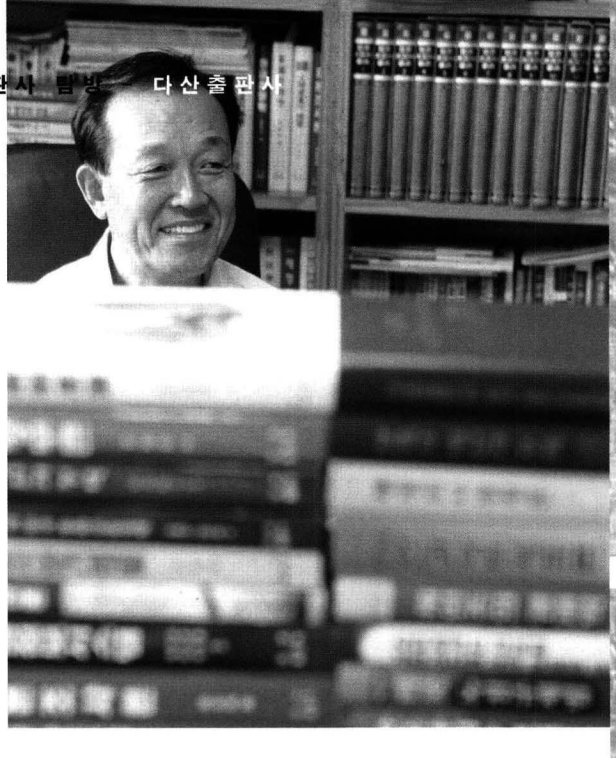
"전자책·IPS통해 학술출판 미래 찾겠다"



다산출판사 강희일 사장(57)이 출판계에 발을 디딘 건 1961년이다. 부모의 사업실패로 인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한 후 덕수상업고등학교 야간부를 다닐 때였다. 법문사에서 운영하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구내서점 점원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강 사장은 1979년 경제경영 전문출판사인 다산출판사를 세웠다. 비록 점원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대학 구내서점에서의 경험은 이후 출판사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엔 제대로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가 귀했습니다. 대부분 외국의 출판물을 짜깁기한 편저 형식이 많았죠. 그에 비해 전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서울대 구내서점에 일하면서 얼굴을 익혔던 학생들이 나중에 다 대학교수가 된 것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그를 봐온 교수들은 강 사장의 성실함과 출판에 대한 열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가 출판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자 흔쾌히 자신의 원고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필자를 소개시켜줬다.

이처럼 출판의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 차근차근 그 길을 넓혀온 강 사장은 출판계에서 강성으로 통한다. 특히 학술도서 출판환경에서 강 사장이 이루어놓은 것이 많다.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회장 시절에는 '대학교재채택료근절' 운동과 '불법 복사·복제의 실태와 근절대책' 에 앞장섰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만들고 한국출판연구소 감사,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 등을 거치며 전국의 도서 불법 복사·복제 근절대책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 및 복사허락 업무를 총괄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복사전송권센터를 세우고 각종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열악한 학술출판의 환경을 개척해 나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근절대책》(문화관광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2)이라는 책과 〈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향후 발전방안〉(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이라는 논문을 써내기도 했다.

"제가 여태까지 출판한 150종 중 순수 학술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90종 정도 됩니다. 교재출판을 병행하면서 학술출판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학술도서 지원이 늘어나고 복사전송권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대학교육문제, 불법복사, 도서관정책 등 근본적으로 학술출판이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강 사장이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걱정 때문이다. 최근 학술과학도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전자책을 정착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총체적인 불황 속에서도 불법 복사·복제를 감소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출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전자책과 온라인 즉시 출력 시스템의 도입은 앞으로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재고 및 물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또한 유지와 보관이 쉽고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영구 보존과 소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즉시출력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고 출판물과 똑같은 화면을 인쇄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불법 복사·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업적 양성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학술출판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